

# LH 사업조정 잇단 연기에 불만 고조

### 첨단산단 준공 미뤄져 분양희망 기업들 아우성

### 효천2지구·빛그린 국가산단 등도 1~2년 늦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조정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사업들의 공사가 잇따라 연기돼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와 LH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고시 시를 통해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이하 첨단산단)와 효천2지구 택지 조성 사업의 준공 시기를 6개월에서 1년간 늦췄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서 첨단산단 전체 면적 992만2000㎡ 중 1단계 793만1000㎡에 대한 사업시행 기간을 기존 2010년에서 2011년 6월 30일로 연기했다. 당초 2009년 준공 예정이던 1단계 사업이 지난해말 2010년으로 1년간 미뤄졌다가 또 다시 6개월간 늦춰진 것이다.

첨단산단 1단계 조성 공사가 늦어지면서 분양 희망 기업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사 관계자는 "첨단산단 분양 문의가 한 달에 20~30건 쏟아진다"며 "대부분 1단계 부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산단 입주업체인 A사는 "최근 3000평 규모의 공장 증설을 위해 부지 분양을 알아봤지만 1단계 매립지 공사가 늦어져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광주 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효천2지구 택지 조성 사업을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간 연장했다.

효천2지구는 광주시 남구 노대동 일원 67만5520㎡ 면적에 보금자리주택 3406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LH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효천2지구는 공사 중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과 문화재 발견으로 사업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토부와 LH는 광주·전남지역 서민주택 사업을 무더기로 연기해 서민들의 비난을 샀다.

LH는 광주 효천지구 등 광주·전남지역 국민임대 및 보금자리주택 13개 사업장 7278가구의 준공 시기를 1~2년간 무더기로 연기했다.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인 '빛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지난 7월 보 상 연기 통보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책기자 jwpark@kwangju.co.kr



**‘넥 워머’ 하나로 따뜻하게, 멋스럽게**  
2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자 1층 집합매장에 올 겨울 인기 패션 아이템인 ‘넥 워머’(neck warmer)를 비롯해 머플러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넥 워머’는 양 끝이 연결된 고리형태로 연결된 머플러의 한 종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카드업계 지각변동 본격화 되나

내년 3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하면 카드업계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로 하나SK카드와 합병하지는 않겠지만 한 지주사 아래로 편입되면 가맹점망 공동 이용과 고객 확보 채널 다양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우선 하나SK카드의 외환카드의 가맹점망을 이용함으로써 가맹점망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후발주자인 하나SK카드는 그동안 수수료를 내고 비씨카드 가맹점망을 이용하다가 지난해 접업계로 탈바꿈한 이후 가맹점망을 넓히고 있다. 또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데 있어 하나 SK카드의 하나은행 영업점, SK텔레콤, 카드모집인의 3개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외환은행에서도 고객을 모으려는 채널의 다양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이외에도 KB카드가 국민은행내 사업부문의 하나로 머물러 있던데서 벗어나 완전히 접업계 카드로 분사할 가능성이 시점이다.

KB카드는 전업계 카드사의 장점인 신속한 의사결정과 은행계 카드사의 장점인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결합해 카드업계 2위(체크카드 포함)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또 농협도 '채움카드' 브랜드를 앞세워 위안제 분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으며, 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도 카드업 진출 의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카드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 “키코 계약 불공정 아니다”

### 패소 기업 항소...공방 계속될 듯

환해지 통화융선상품인 키코(KIKO) 계약이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계약 과정에서 은행이 기업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개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와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9일 이른바 '키코 사건' 91건(118개 기업)에 대한 판결을 일제히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해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통일된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외화유입 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

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각 재판부는 이에 근거해 개별 사건에서 고객보호 은행이 의무를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가 결정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현 항공산업주에 1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낸 118개 기업 가운데 19개 기업에만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나머지 99%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김화량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장은 "상품 자체의 적합성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융선 상품이다.

/\*연합뉴스

## 외국 나가 쓰는 돈 갈수록 는다

### 3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19억달러 사상 최대

올해 3분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카드 해외 사용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내국인의 카드 해외 사용액은 19억달러로 전분기보다 8.8% 증가했다.

이는 리먼사태 직전인 2008년 2분기의 18억7000만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사상 최대수준이다.

분기별 해외 카드 사용액은 작년 1분기 11억달러까지 줄었다가 2분기 12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증가

했다.

이해 리먼사태 직전인 2008년 2분기의 18억7000만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사상 최대수준이다.

분기별 해외 카드 사용액은 작년 1분기 11억달러까지 줄었다가 2분기 12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증가

세로 돌아선 뒤 1년6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민의 해외여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내국인의 출국자 수는 347만명으로 전분기보다 17.4% 늘어났으며 카드 해외 사용자 수는 329만명으로 8.6% 증가했다.

3분기 중 외국인이 국내에서 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원화 약세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늘면서 전분기보다 5.7% 증가한 7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연합뉴스

## 대부업 최고금리 연 30%로 낮아지나

### “영업환경 나빠져 부작용” 정부-한나라당 입장차

금융권 최고 금리를 연 30%로 낮추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입장차를 보여 고금리의 대명사로 통하는 대부업체들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 시선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법재 의원은 지난해 사인 간 거래를 포함한 제2금융권과 대부업 등 모든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제한했으나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관련 규정을 통해 이보다 낮은 3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상한 금리를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종래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 거래에 대해서만 상한 금리를 적용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대부업 최고 금리는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44%이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로 무려 14%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한나라당 내에 설치된 서민정책특위 차원의 검토 과정

을 거쳐 제출된 것이어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안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최근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부업 금리를 한꺼번에 과도하게 내리면 영업환경이 나빠져 오히려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우려다.

법무부는 특별법인 대부업법에 명시된 대부업 금리 상한을 일반법인 이자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 한국은행, IT서비스 'ISO 20000' 획득

한국은행은 29일 한은의 정보 시스템 체계가 정보기술(IT) 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ISO 20000)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20000은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비즈니스와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제시된 표준이다.

한은은 2007년 경영관리 시스템에 대해 ISO 20000을 획득한 데 이어 전 체 정보 시스템으로 범위를 넓혀 이번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그곳”

**건강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병원!!!**

**최고의 병원!!**  
이 지면을 이용하실 병원 연락주세요!!

문의 전화  
062)220-0528 / 010-4767-2676

**비수술적 디스크 치료**  
서울 휴신경외과

디스크 수술을 고민하신다면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보세요!!

디스크 치료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여 일상 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휴신경외과 홈페이지 [www.seoulhuh.co.kr](http://www.seoulhuh.co.kr)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시술 사례 및 방법에 대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휴신경외과의원**  
예약 문의 인터넷: [www.seoulhuh.co.kr](http://www.seoulhuh.co.kr)  
전화 예약: 062)374-5555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지동동 117-1 (연서동) 117-1번지 117-1호 2층  
주차장: 중앙병원 주차장

**알레르기성 비염**  
코피·축농증

50년 전통! 대를 이은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대한생명 옆 한미쇼핑 맞은편  
TEL : 062) 227-7575, 223-8300, 222-9487

**시과같은 얼굴, 피부미인의 지름길**  
강·한·남·자/피·부·미·인

**전립선·탈모 피부레이저**

**강남 피부과 비노기과 의원**  
전문의 원장 한승호

동구 대인동 30.3번지 2층-롯데백화점 주차장 주차 무료  
예약및상담 062) 233-6060

당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모발이식·지방흡입**

Before After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 6개월)  
복부 허리 둔부 전층 지방흡입 시술 2년후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기습성형 모발이식·눈썹이식

**삼선의원** 상담문의 TEL 062) 653-7656